

# 밀턴의 〈復樂園〉에 나타난 Temptation의 意味

金 亭 奎

- 目 次
- (1) 부의 유혹
  - (2) 명예의 유혹
  - (3) 정치권력의 유혹
  - (4) 지혜로 유혹
  - (5) 셋째날의 시험

- I. 서 론
- II. 본문 이해
- III. 성경적 의미
- IV. 작품속에서의 의미
  - ① 첫째날의 시험
  - ② 둘째날의 시험
  - ③ 여섯째날의 시험
- V. 결 어

## I. 서 론

17C의 영국지인들 가운데 뛰어난 시인은 John Milton이다. 그는 William Shakespeare와 함께 영국의 Renaissance 이후의 가장 위대한 시인 중의 하나이다. Wordsworth는 그를 말하여 “그대 灵魂은 별처럼 멀리서 빛나고 있었다”고 했다. 그의 작품 중에는 失樂園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 자신이 실락원보다 조금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고<sup>1)</sup> Dr. Johnson, Wordsworth, Coleridge 등이 완전한 작품이라고 한 것이 있다.<sup>2)</sup> 그것이 바로 復樂園 (paradise regained)인 것이다. 이 복락원의 개념은 기독교적 사상에서는 더욱 중요한 主題가 되어진다. 그것은 실락원이 인간 실패의 과정인 반면에 복락원은 聖子의 회복 시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Milton이 뉴 4:1~13에 취급한 시험의 내용 중 Temptation의 개념의用例를 살펴보기로 하는 것이다. 복락원은 4권 2070行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tempter, temptation, Tempt이란 단어는 26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와 내용은 바로 시험과 여기에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試驗에 대한 作家의 이해와 그것이

1) David Masson, *The poetical works of John Milton*, New York Thomas Y. Crowell & Co., 1877, p. 287.  
2) 이양하, 영국문학사, 신구문화사, 1967, p. 230.

作品에 投影된 모습에서 시험이란 단어의 개념의 변천을 살펴볼 때 우리는 事實의 美化過程에 나타난 意味의 변화와 審美的 昇華過程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복락원의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시험의 내용을 통하여 성경적 사실의 시험(temptation)이란 개념과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II. 본문의 이해

Satan이 聖子를 誘惑하는 장면은 세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으나, 마가복음에는 너무나 짧게 취급이 되고 있으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詳論되고 있다. Milton의 복락원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展開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누가복음의 本文에 대한 考察을 중심 하여 작품의 배경이 된 사실을 살펴보자 한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직후에 사람들로부터 떠나있기 위하여 40일 동안 광야에 물려가 있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sup>3)</sup> 하는 天來의 음성의 의미를 解得하고자 혼자 있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것은 메시야 사역의 본질을 알고자 한 것이다. 그의 광야행은 특히 누가복음에는 “이끌리다”<sup>4)</sup>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한다. 40일간의 禁食은 그 기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보다는 오랫동안 禁食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시간을 정해 놓은 계획적인 행동이기 보다는 영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육체적 욕구를 거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靈的인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적 압력을 意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자 예수께서 배고픔을 깊이 느끼게 되었고 바로 이때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온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두 시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를 달리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둘이 떡이 되게, 聖殿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게, 마귀에게 무릎을 끓게, 하는 순서이나, 누가복음은 떡이 되게, 무릎을 끓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게 하는 순서이다.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누가의 순서가 妥當하게<sup>5)</sup> 논리적인 순서로는 마태의 순서가 더 자연스럽다.<sup>6)</sup>

3) 빅3:22 이 말의 의미나 기원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 재료는 구약에서 메시야 장으로 생각하는 시 2:7과 사 4:21일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수난의 종(시 42:1)이나 하나님의 아들(시 2:7)로 보는 것이다. 12세 때의 예수의 경험은 그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종교의 회생적 봉사와 자기가 특별한 관계임을 알고 있었다. 이제 종의 사역에 앞서 세례 때에 들은 이 음성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와, 이스라엘의 종교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인 것이다. 즉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역할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수난의 종의 양상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사람을 떠나 광야에 나가는 것이다.

4) 빅 : he was being led in the Spirit in the wilderness

막 : drove him out into the wilderness

마 : Was led up into the wilderness by the Spirit

5) 처음 두 번은 광야에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6) 육체적 끓주림이란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에 최상의 권위를 두는가 사단에게 두는가 하는 높은 차원으로.

성경은 이 시험들이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시험들이 사실 그대로 산에 올라가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던지 혹은 예수의 想像 속에서 이사야의 受難의 종의 걸음을 걸으려하고 메시야로서의 그의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마음속의 생각과의 씨름이던지 간에 이 시험은 실제적이고 의미심장한 것이다.<sup>7)</sup>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브로’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sup>8)</sup> 시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의심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들처럼 끓주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능력으로 이런 고통을 벗어나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反駁은 신8:3의 引用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최근에 들은 말씀은 苦難의 길을 걸어가라는 하늘의 음성인 것이다. 지금 받고 있는 이 유혹이 야말로 고난의 길을 피하라는 시험인 것이다. 즉 육체적인 수준에서의 고난을 피하라는 유혹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과 끓같이 그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맡기는 쪽을 택한 것이다.

두 번째의 시험은 정치적 권력의 시험이다. 예수께서 높은 산위에 서서 멀리 경치를 내다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정치적 왕국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백성들은 이런 메시야가 나타나 로마에 대항하여 훌륭한 나라를 세워줄 것을 바랐다. 마귀의 뜻에 服從하고 그 길을 받아 들인다면 정치적 왕국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윗이나 솔로몬같이 국가를 세우면 더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誘惑이 생길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나 이것도 수난을 피하는 일이다. 예수의 대답은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끓어야 한다. 하나님에게만 禮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구조를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인 더 어려운 수난의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華麗한 수준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데 그 촛점이 있다. 이 시험은 사람을 엊는데 있어서 자기자신과 그 능력을 華麗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시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래에 모여 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그 말이 상하지 않게 모셔 내려줄 때 백성들이 그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야라고 맞아주리라는 시험이다. 이것 역시 수난을 피하고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하는 시험인 것이다. 마귀는 시 91:을 인용하여 예수를 시험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시 91:의 약속이 자신을 宣傳하거나 하나님께 挑戰하는 자의 발을 불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줄 알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賦課한 고난의 길을 가는 자의 발을 불들어 준다는 것이며 그러한 길을 걸 때 하나님의 계심과 도우심이 그것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쉬운 길을 택하라는 모든 시험을 이긴 것이다. 이것이 예수께서 세례직후 이제 곧 사역을 시작하려는 마지막 단계에 경험하신 것이다. 수난의 길을 피하게 하려는 모

7) Ray Sunmers, *Commentary on Luke*, Word Book publisher, 1972, pp. 52—55.

8) Ibid., p. 53.

는 誘惑을 물리친후 궁극적으로 예루살렘과 십자가에 이어지는 고난의 길위에 그의 발을 올려 놓으신 것이다.

### III. 성경에 나타난 시험(Temptation)의 의미

聖經의 시험(Temptation)이란 말은 본래는 현대에서 통용되는 誘惑이란 말과는 다르게 쓰이고 있다. 그것은 사람을 시험(test)해 보아서 그의 능력을 알아보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sup>9)</sup> 반드시 약점을 드러내게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A. V. 의 Tempt란 단어도 이러한 넓은 의미의 "Test"이며 고대 영어의 의미이다. 17C부터 비로소 이 Tempt란 단어가 유혹이란 뜻의 시험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사용되어졌다.<sup>10)</sup> 이들의 성경적 의미는 ① 사람이 타인을 시험하여 그의 능력을 찾아보고 측정하는 것.<sup>11)</sup> ② 사람이 자기를 省察하여 자신의 연약성과 한계를 알아 보는 것.<sup>12)</sup> ③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무시하고 挑戰하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sup>13)</sup> ④ 사람이 그의 백성을 시험하여 그들의 신앙과 경건의 질을 나타내게 될 狀況에 두는 것.<sup>14)</sup>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읽게하고 純潔하게 하고 인내심을 갖게하여 신자의特性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도록 하는 것. 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허용안에서 시험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도록 오도하는 것.<sup>15)</sup> 등으로 말하고 있다.

위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시험은 하나님의 일이며 동시에 마귀의 일이다. 유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이든 악이든 새로운 가능성에 적면케하는 狀況에서 후자를 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시험은 마귀의 일이며 마귀는 하나님의 적이면서 동시에 道具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종을 시험 가운데 있게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며<sup>16)</sup>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탄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실제적 요소는 하나님 또는 그의 명령이 아니다.<sup>17)</sup> 죄 짓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람의 것이며 여기에 굴복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救主는 그의 弟子들에게 시험에 들게 자신들을 露出시키지 않도록 요구했고<sup>18)</sup> 시험의 압박에 굴하지 않게 깨어서 祈禱하라고 한 것이다. 시험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sup>19)</sup> 惡의 제의가 수락되

고 거기에 굴복이 되어졌을 때 시험이 곧 죄가 되어지는 것이다.

위의 諸事實에서 성경적 의미의 시험은 인간에게는 필연적인 狀況이며 여기에서의 解決의 능력은 인간에게는 너무나 벅찬 일이어서 스스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본연의 자세인 구주안에서의 해결책 밖에는 기대할 수 없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解決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시험에 대한 승리는 바로 잃어진 낙원을 찾게 되는 인간 승리의 시작인 것이다.

### III. 작품중에 나타난 시험

Milton의 이 作品에 의하면 시험은 3일동안 계속된다. 嘉野에 있은지 40일째가 되는 첫째 날에 사단은 늙은 農夫로 변장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의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위에 있는 둘들이 떡이 되게해서 그의神性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이 첫번째 시험이 1권의 마지막까지 계속이 되고 광야에 밤이 오는 장면을 서술함으로 1권은 끝이 난다. 두번째 시험은 절개 늘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제2권에서 시작하여 3권의 全部와 4권의 반 이상이 이 시험으로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Milton은 성경에서 짧막하게 기록된 상황을 그의 想像의 날개 아래에서 마음껏 펼쳐가는 것이다. 밀턴은 이 날도 전 날처럼 기아의 시험을 계속당하고 나서 富와 權力의 순서로 옮아가서 산 꼭대기에서 지상의 왕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야망에 호소한 시험이 수포로 돌아가자 사단은 로마대신에 아테네를 보여주며 순수한 지적 卓越性에 대한 열정으로 유혹한다.

이것도 실패하자 두번째 날이 저물고 산에서 내려와서 광야에서 폭풍중에 밤을 지낸다. 그 다음 날의 마지막 시험도 승리하게 되자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아무도 모르게 그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밀턴 學徒中에는 이 시는 시로서 創作할 수 없는 素材를 詩로 다루어 성공한 모든 高貴한 試圖중에서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고 평하며 또한 新約을 詩化하려는 노력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한다.<sup>20)</sup> 작가들은 이 素材로 많은 작품을 만들고 있으며 인간의 全 未來史가 완전한 형태로 要約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sup>21)</sup> 먼저 素材와 일치된 부분에서 나타난 시험의 개념부터 생각하고 그 후에 밀턴의 상상의 세계를 같이 거닐어 보는 가운데 시험에 含蓄된 의미를 살펴야 할 것이다.

9) 창22:1

10) New Biblical Dictionary, IVF Press, 1962, p. 1250.

11) 王上 10:1, 막 8:11, 뉘 10:25

12) 고전 11:28

13) 출 17:2, 민 14:22, 말 3:15

14) 창 22:1, 출 16:4, 20:20,

15) 용 1:12

16) 마 4:1, 6:13

17) 약 1:12

18) 마 6:13.

19) 히 4:15.

20) 존·밀턴., 유령역, 실락원·복락원, 을유문화사, 1973, p. 16.

21) 도스포엡스키, 체대치 역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동서 문화사, 1권 p. 395.

### ① 첫째 날의 시험

제1권 342行에 나타난다.

"But if thou be the Son of God, command  
That out of these hard stones be made thee bread;  
So shalt thou save thyself, and us relieve with  
food, whereof we wretched seldom taste."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하시오 이 단단한 돌들이 떡이 되어지도록,  
그리하여 당신자신을 구하고 우리를 구하도록)  
비참한 우리들이 먹기 힘든 그 음식으로

이 시험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모세와 엘리야의 오랜 禁食을 例로 든 後에

Why dost thou, then, suggest to me distrust,

왜 그런대 나에게 不信을 제의 하느냐

하며 이 상황에서 육체적 욕구의 충족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모세가 40일을 산상에서 지냈어도 음식을 취하지 않았고 엘리야도 사십일을 不毛의 땅을 헤매었어도<sup>22)</sup>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그러한 불신을 제의의 하지 말라. 나는 먹지 않아도 죽지 않을 확신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문은 肉體的 本能으로 유혹해오는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수난의 길을 택하는 救贖論인 意味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떡을 만들어 그대 자신을 구하라는 마귀의 시험은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야 인식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며 떡을 만들게 되면 굶주리는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은 밀턴의 創作이다. 성경상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누어서 불충성의 명령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이다.<sup>23)</sup> 하나님의 이런 상황에 두셨으니 이제는 필요한 것을 당신의 힘으로 충족하라는 시험이다.

여기에는 밀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단을 등장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나타보다도 갈증에 익숙하고 苦難을 견디고자 태어난 사람이지만 당신은 神의 아들이니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떡을 만들어 神의 아들답게 주님을 면하고 우리에게도 同情을 베풀어 달라고 유혹하는 것이다. 素材는 밀턴자신의 苦惱를 반영하게 된다. 찬란했던 크롬웰 공화국 時代의 영광은 사라져 버리고 눈조차 어두워져 버린 불운 가운데 마지막 황혼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현실적 고통은 부단히 시험해 오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아 나의 窮乏을 해결해

22) John Milton's poetical works, Thomas Y. Crowell Co., 1877, p. 298.

23) Colvin's New Testament Commentary, Eerdmans, 1972, p. 137.

줄 능력이 있을 분인가? 부패한 왕당파들 사이에서 失意의 나날을 보내는 그의 不運, 不德한 아내에게서 받는 쓰라린 경험<sup>24)</sup> 初娶所生의 교양없는 세 딸들에게서 받는 쓰라린 괴로움, 빙궁, 고독, 가운데서 비참한 나날을 살아가는 밀턴에게<sup>25)</sup> 전적으로 하나님을 依支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방법으로 내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유혹은 바로 자신의 문제였을 것이다.

### ② 둘째 날의 시험

첫번째 보다 밀턴의 詩의 세계로 더욱 많이 들어가게 된다. 먼저 여성으로 誘惑을 해보자는 의견을 가진 마귀가 있었으나 여성으로는 도저히 유혹할 수 없음을 알고 화려한 盛饌, 富, 榮光,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 Parthia나 로마와 동맹, 왕좌, 그리스의 지혜의 순서로 유혹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래에 닥쳐올 여러가지 고난으로 誘惑하게 된다. 이 두번째 시험의 부분은 바로 밀턴自身의 表現인 것이다.

### ⑦ 여성의 유혹하는 문제

마귀들의 회의에 벨리알<sup>26)</sup>을 등장시켜 여성의 유혹(이때는 완전히 誘惑의 개념)을 말한다.

"Set women in his eye and in his walk  
Among daughters of men the fairest found  
.....중략.....  
Women, when nothing else, beguiled the heart  
of wisest Solomon, and made him build,  
and made him bow, to the gods of his wives."  
그의 눈앞에 그의 발앞에 여인을 두라.  
사람의 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자를 찾아서  
여자만이 속일 수 있겠도다.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그로하여금 짓게하고  
절하게 하였도다. 그 여인들의 신당에

이러한 벨리알의 提案에 대하여 사단의 대답은 마귀들의 首領답게 견해가 卓越하고 관점이 크다. 美人計로서는 성사가 되지 않으니 좀더 가치있는 미끼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sup>27)</sup>

For Solomon, he lived at ease and, full  
of honour, wealth, high fare, aimed not beyond  
Higher design than to enjoy his state;

24) 이양하, 영국문학사, 신구문화사, 1969 p. 230.

25) Ibid., p. 215.

26) 고후 6:15.

27) 밀턴, 실락원, 복락원, 유령역, 을유문화사, 1973. p. 488.

Thence to the bait of woman lay exposed,  
But he whom we attempt is wiser far  
Than Solomon, of more exalted mind  
made and set wholly on the accomplishment  
of greatest things.

솔로몬은 평안히 살았고 명예와  
부와 고량 진미에 쌓여서  
자기의 현상을 즐기는 이상의 뜻은 없었으  
그래서 여성의 미끼에 빠졌으  
그러나, 우리가 시험하려는자는 솔로몬보다  
더 슬기로와 더 높은 뜻을 가져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도록 태어났고  
또 전력하는 것이라오.

魔鬼의 회의에서 여인의 유혹이 소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실제로는 전혀 採用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밀顿 자신의 생애 중에서 여성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되어진다.

밀顿은 세 번 결혼했으나 두 번은 아주 불행한 관계였다. 첫 번째 아내였던 May Powell은 결혼 별거, 재 결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었고, 그와의 사이에 세 딸과 한 아들을 얻었으나 아들은 일찍 죽었다. 그의 두 번째 아내인 Katharine Woodcock와 결혼했으나 2년을 더 지내지 못하고 사별한 것이다. 그의 말년 전처의 소생인 세 딸이 너무 괴로움을 끼쳐서 다시 결혼하라는 충고를 주위에서 많이 받고 세 번째 아내 Elizabeth Minshull을 얻어 겨우 노년에 가서야 아내로 부터 위로를 얻은 것이다. 딸들이 준 괴로움은 이들이 하녀들과 結託되어서 가난한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책들을 팔고 그의 생활을 늘 비참하게 만든 것이다.<sup>28)</sup>

이러한 생애를 살아간 Milton은 여성의 시험을 크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이다.

#### ⑤ 富로 유혹하는 문제

"Therefore, if at great thing thou wouldest arrive,  
Get riches first, get wealth, and treasure heap  
not difficult, if thou hearken to me;  
Riches are mine, fortune is in my hand;  
They whom I favour thrive in wealth amain,  
While virtue, valour, wisdom, sit in want."

Milton이 이 富의 문제를 심각한 유혹으로 다루고 있다. 그것은 그 자신이 晚年에 극심한 빈곤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

28) Dovid MASSON, Introduction to the paradise Regained in *The poetical works of John milton*, Thomas Y. Crowell, 1877, p. 11.

And all thy heart is set on high designs,  
High actions. But wherewith to be achieved?  
Great acts require great means of enterprise;

뜻은 고상하지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고 광야에서 길을 잊고 饑餓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고상한 뜻을 이룰 수가 있는가? 목적을 위해서는 황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돔 사람 안티파텔<sup>29)</sup>을 높여주고 그 아들 해롯을 당신의 자리인 그 유대 王座에 앉혀준 것은 황금이 아닌가? 그것이 해롯에게 강력한 지지자를 얻게 해 준 것이 아닌가? 내가 돌보는 사람은 마음껏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인 것이다. 이것은 만년의 밀턴 자신의 심경을 읽는 것 같다. 그가 少時 때부터 가졌던 야심은 Homer나 Virgil 같은 한 나라를 대표하고 한 時代를 代表하는 위대한 서사시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뜻아닌 그리고 의외에 長久한 세월에 걸치는 정치논쟁 때문에 이 대망을 실현할 여지를 갖지 못하다가<sup>30)</sup> 이제 그 인생의 황혼에 이 시기를 갖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생활 그 자체가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빈궁한 大家는 현실적인 고통 중에서 그리스도가 재물로 시험을 당하는 모습을 자신의 일처럼 寫實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What followers, what retinue canst thou gain  
or at thy heels the dizzy multitude,  
Longer than thou canst feed them on thy cost?  
Money brings honour, friends, conquest and realms."  
어떤 추종자를 어떤 수행원을 그대가  
얻을 수 있는가? 또는 그대를 따르는  
현혹된 군중은 그대의 비용으로 기를  
수 있기는 너무 길지 않은가  
황금은 명예와 멋과 정복과 영토를 가져오도다.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德, 勇氣, 智慧를 들어서 이 셋이 없이는 부귀나 영토를 얻거나 또 그것을 유지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 예로는 지상의 왕국들이 이 셋이 결여될 때에는 부귀의 절정에서 와해되는 것을 역사가 증거하며 이 셋을 갖춘 자는 가장 궁핍한 가운데서 최고의 위업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드온과 입타와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대답한다. 결국 시험을 이기기 위한 결론은 2권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으로 구원의 교리를 따라 진리의 길에 백성을 인도하고 과오로 부터 구하여 神을 알도록 인도하고 神을 알아서 옮기고 예배하는 것이 더욱 王者다운 일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밀턴은 이 왕자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이 왕홀을 잡는 것보다 훌륭하다는 결론으로 이 황금의 시험에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描寫하고 있다.

29) 밀턴, 실락원 복락원, 유령역, 을유문화사, 1973, p. 490.

30) 이양하, 영국문화사, 신구문화사, 1969, p. 220.

## ◎ 名譽와 영광으로 유혹

부의 시험으로 실패한 마귀는 名譽와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심판한다.  
마귀는 말한다,

Glory, the reward  
That sole excites to high attempts the flame  
of most erected spirits, most tempered pure Ethereal.

하며 이제는 마땅히 영광을 누릴 때가 되었다고誘惑한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은

For what is glory but the blaze of fame,  
The people's praise, if always praise unmixed?

명예는 民衆의 칭찬에 지나지 않는것이고 민중이란 무질서한 무리 잡동사니 난민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면 거의 칭찬할 가치가 없는 비속한 것을 격찬하는데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다. 밀턴은 공화정치를 理想으로 하였으나 민중은 무지하고 분별이 없다고 경멸했다.<sup>31)</sup> 그래서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어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증명하는 이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며 반박하고 있다.

밀턴 자신이 얼마나 名譽를 추구했는가 하는 것은 밀턴학도들 간에 많은 비평이 되고 있다. 가혹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밀턴의 성격이 병적으로 자단심이 강하고 이지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육체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하여 강하게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이며 그 뿐 아니라 칼빈주의적 신학과 마키아벨리적 윤리관에서 나온 개인적인 정열때문이라고 한다.<sup>32)</sup>

사실 밀턴이 사교적인 성품을 가졌던 것은 그의 전기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천성이 그가 외교관이라는 공직을 가지게 되는데에 많이 작용을 한것이다. 또한 밀턴이 30대 초기 1년동안 플로렌스 로마 나폴리 등을 방문하고는 그렇게 많은 知人들을 가지게 되고 그들중에 많은 사람과 계속해서 서신왕래가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온후하고 기민한 성품을 가졌던 것을 말해준다. 그는 외교관적인 천품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sup>33)</sup> 그의 정계생활이 Cromwell의 치하에서 오랫동안 계속된것을 그의 권력과 영광에 대한 욕망의 결과로 보는 이도 있다.

명예 자체에 대한 밀턴의 표현은 Lycidas에 잘 나타나 있다. 본래 이詩는 본래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태도를 단호하게 나타낸 것인데 Edward King이라는 그의 학우가 1637년 여름방학동안 Dablin으로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한 것을 吊喪한 哀悼詩이다. 그러나 Dr. Johnson이 말한대로 순수한 설움을 표현하였다기 보다는 Milton자신을 더 많이 말한 詩이다.<sup>34)</sup> 이 시중에 명예에

31) 밀턴, 실락원 복락원, 유령역, 을유문화사, 1973, p. 506.

32) John Milton, *paradise lost*, Merritt Y. Hughes1935, p. 13.

33) Ibid., p. 12.

34) 이양하, 영국문학사, 신구문화사, 1969. p. 218.

## 관하여 노래한 중에서 Milton의 명예에 대한 개념을 보면

Fame is no plant that grows on mortal soil,  
Nor in the glistering foil.  
Set off to the world, nor in broad rumour lies,  
But lives and spreads of aloft by those pure eyes  
And perfect witness of all-judging Jove.<sup>35)</sup>

명예는 썩을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다.

번쩍이는 장식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퍼져가는 소문 가운데서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순결한 눈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전능한 자의 완전한 증거를 통하여  
孤高하게 살아가고 퍼져가는 것이다.

사단이 명예를 가장 거룩한 精神의 불꽃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이것은 바로 밀턴 자신의 명예에 대한 表現인 것이다.

##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That who advance his glory, not their own,  
Them he himself to glory will advance.  
제 영광이 아니라 神의 영광을 구하는자를  
神께서 친히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이것은 밀턴자신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며 사단은 더 이상 榮光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스스로의 榮光에 겨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라고 밀턴은 생각하기 때문이다.<sup>36)</sup>

## ◎ 정치적 권력으로 시험

유대가 신전을 어지럽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예속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예언자들은 통하여 이 나라를 해방시켜 무한한 聖代를 가져오도록 예언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군림할 때가 아닌가 하며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다.

당신은 갈릴리의 조그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에는 미숙하다고 하며 神의 아들을 높은 山꼭대기에 데리고 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아시아 제국의 영화를 보여주고 특히 팔티아의 군대의 위세를 보여준다. 그리고 로마와 팔티아 중에서 한편을 들고 한편을 놀려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권한다. 그다음에 사단은 로마 제국의 번영을 나타내 보이고 이를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라고 권한다. 그리고는 성경의 두번째 시험에 해당하는 비슷한 내용이

35) *The Oxford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 1254.

36) *John Milton's poetical works*, Thomas Y. Crowell, 1877, p. 317.

나오는 것이다.

이 시험은 복락원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밀턴의 작품세계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세계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지상의 대 정복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도 일찌기 이스라엘이 승리의 생활을 누린 것은 그들이 공정, 겸소, 온유, 절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잔인하고 사치하며 탐내고 오락으로 유약하여져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대답한다. 이렇게 내적으로 노예가 된 자를 외적으로 자유케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유대교적 구원으로 시험하는 마귀에게 기독교의 救援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성경적 하나님 주권사상은 크게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인간이 겸소하고 공정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권력뿐 아니라 다른 시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시험받는 인간의 性情<sup>37)</sup>만 강조되어 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은 저절로 약해지며 따라서 밀턴은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만으로 낙원의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밀턴의 생애는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화제가 실시되고 1649년 찰스1세가 사형된 후 대륙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沸騰할 때 그는 라틴어로 된 논쟁서를 출판하여 국회의 행위를 옹호했다.<sup>38)</sup> 공화제 치하에 밀튼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화제옹호자의 위치에서 문필 활동과 경제생활을 지냈으며 1660년 정치적 여건이 아주 불리해질 때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문서로 공화국을 지지하여 왕정이 復古된 후에는 公職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잠시 동안이지만 투옥이 된 때도 있었다.

사단이 정치적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장면에 이처럼 공감을 가지도록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정치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내면적 경험세계 및 정치적 차원에서의 그의 인간 이해와 역사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앞의 모든 항목에서 보아 오듯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단의 시험은 사단의 밀턴적인 시험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 ② 智慧로 유혹

밀턴은 이 智慧의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있다. 부로도 명예욕으로도 권력으로도 시험 당하지 않게 되자 아직도 높은 신에서 멀리 아테네를 보여주며 헬라세계의 위대한 정신문화를 논하고 지식의 享樂을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 문학의 위대성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4권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논란에서는 이미 素材의 영역은 떠나서 밀턴 자신의 지적 활동내에 이끌려 다니는 독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밀턴은 그의 작품과 정치활동이

37) 約 5:17.

38)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W.W. Norton, 1962, p.409.

보여주는 것처럼 雄大한 지식을 소화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일찌기 St. Paul School에서 라틴어와 헬라어를 마스터하고 곧 얼마되지 않아서 히브리어는 물론 대부분의 근대 구라파語에 익숙하게 되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Horton에 있는 아버지에 開居하면서 5년 동안 자기 자신의 독서계획에 따라서 밤낮으로 책을 읽은 것이다. 그는 영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진 모든 책을 전부다 읽은 것처럼 보였다.<sup>39)</sup> 그 후 블란스, 이태리의 여행을 통하여 실제적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 특히 이태리 여행시에는 獄에 갇혀 있던 칼릴레오를 만날 만큼 진리를 위한 그의 정열은 강렬했던 것이다.

Milton의 글에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要素가 짙게 나타난다.

Renaissance의 영향은 작품에 나타난 풍부한 고전의 참조와 修辭와 수식의 풍성함 등에 나타난다. 실락원과 같은 작품은 밀顿을 호머나 비질에 비견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인간의 생의全面 즉 전쟁, 사랑, 종교, 지옥, 천국, 우주 등을 모두 포함하는 大敘事詩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험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문예부흥의 영향인 것이다.

宗教改革의 영향은 인간의 내면적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사람의 양심 깊은 곳을 다루는 작품들에서 나타난다. 또한 아담의 운명이 능동적인 영웅주의가 아니고 수동적인 수난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 아담이 사단은 물론이고 Hector나 Turnus를 죽이지 않고 세상적 생존의 부담을 짊어지고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것<sup>40)</sup> 등은 종교개혁의 영향인 것이다.

이러한 知的 巨人的 작품에서 유혹의 결정에 知的誘惑을 두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All knowledge is not couched in Moses' law,  
The Pentateuch, or what the Prophets wrote,  
The Gentiles also know, and write, and teach  
To admiration, led by Nature's light;

모든 지식이 모두 모세의 율법 속에, 오경 속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방인도 또한 놀랍게도 자연의 광채에 인도되어  
알고 쓰고 가르치는 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밀턴 자신의 소리인 것이다. 아테네를 바라보는 장면 묘사는 더욱 놀랍다. 밀턴은 그의 해박한 고전적 지식과 헬라 文化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상황을 그려가는 것이다. 소재를 떠나버린 시험은 역시 그의 히브리 文化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히브리 문화야말로 根源의 것이고 헬라 文化는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39) Ibid., p.409.

40) Ibid., p.410.

내용이다.

Our Hebrew songs and harps, in Babylon  
That pleased so well our victor's ear, declare  
That rather Greece from us these arts derived  
Ill imitated while they loudest sing  
The vices of their deities, and their own,  
바빌론에서의 우리 히브리 노래와 거문고는  
우리 승리자의 귀를 뽑시 기쁘게해 주었으니, 선언하오  
오히려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의 예술을 모방한것을  
그러나 너무높여 노래하므로 잘못 모방하고 있오.

두번째 날의 시험은 지식으로 유혹하는 것으로 끝을맺고 이제 山에서 내려와 다시 광야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서 밀턴은 그의 작품의 劇的 效果를 높이고 있다. 우뢰, 폭우, 귀신들의 함성, 포효, 비명소리가 화살을 빗 맞은 맹수처럼 異野의 그리스도를 위협하지만 그리스도는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는다. 밀턴의 악마는 공포로도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다.

### ③ 셋째 날 시험

마지막 세번째 시험은 극히 짧막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밀턴의 시를 읽어가면 독자는 왜 밀턴이 누가복음을 그 배경으로 사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성전 꼬대기의 사건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기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굴복한 후에 성전 꼬대기에 우뚝서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훌륭한 視覺的 效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sup>41)</sup>

사단에게 내려진 최후의 철퇴는

Also, it is written

Tempt not the Lord thy God 이다.

이제는 魔鬼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테베의 괴물처럼 공포와 고민에 절려 물러가 버리는 것이다. 4권 431연을 보면 지식으로 시험해서 실패해도 아직 힘이 사라지지 않았던 마귀는 이제 더이상 시험할 힘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정이 되었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 새 힘을 얻게된다. 이렇게 밀턴의 시험은 상상의 세계에서 성경적 세계로 연결되는 가운데 끝이 나는 것이다.

## V. 結 語

Milton의 작품으로 우리는 그의 역사적 감각이 성경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1) John Milton's poetical works, Thomas Y. Crowell, 1877, p. 287.

밀턴은 구약의 예언서들과 시편이 신약에서 기독론으로 일치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시험을 이김으로 아담이 앓었던 윤리적 완전성을 회복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기독론적 개념은 주를 믿는 사람이 참여하는 代贖의 죽음이라는 정통적 교리와는 무관하며 밀턴이 성경을 獨自의으로 읽었던 결과인 것이다.

이 詩의 主題라고 할수 있는 첫 연

I, who erewhile the happy Garden sung  
By one man's disobedience lost, now sing  
Recovered Paradise to all mankind  
By one man's firm obedience fully tried  
Through all temptation, and the Tempter foiled  
In all his wiles, defeated and repulsed,  
and Eden raised in tie waste Wilderness.

에서 해설자 Thyer는 밀톤이 낙원의 회복을 취급하면서 이 광야시험만 다루고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다루지 않은 것은 시험을 이기는것 그 자체가 그가 앞에 쓴 실락원과 좋은 대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42)</sup>

그러나 그의 전 작품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살펴본대로 시험의 의미가 당시의 전통적 기독교적 개념과 아주 다른것을 생각할때 그의 기독론에는 그 만의 독립적인 思考가 있는것을 생각할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개념은 경험에 의하여 발전된다고<sup>43)</sup> 생각할때 그의 기독론은 Milton자신의 특별한 생애와 깊이 관계되어 지는것을 살펴본 것이다.

기독론의 개념처럼 시험에 대한 그의 개념도 그의 대작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전 생애와 관련지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人間이 계시의 존의 사고와 생활태도를 벗어날때 인간理性은 그의 경험에 따라 또는 선형적 사실의 경험적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밀턴의 긴 서사시는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감명가운데 읽혀서 가지만 구원의 주를 바라보게 하는 실제적인 힘에는 Bunyun의 작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단지 인간의 처절한 노력의 흔적이 그리고 밀턴의 그 천재성이 짙게 깔렸을 뿐이다.

人間救援이라는 대 주제를 밀턴은 試驗이라는 단어 하나로 해석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단어 역시 자기의 주관적 개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읽게될때 독자들은 금강산의 절경가운데서 먹을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처럼 Milton이 그려주는 美的 세계의 아름다움에 耽溺되는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은 유혹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보려는 힘든 노력을 계속하는 딱한 형편가운데 있게되는 것이다.

42) Ibid., p. 284.

43) Encyclopaedia Britanica, 1969. Vol6 p. 254.

## 참 고 문 헌

- ① Colvin's *Newtestame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1 Eerdmans 1972.
- ② David Masson, Introduction to the paradise Regained in *The poetical works of John Milton*, 1877.
- ③ H. R. Rookmaaker, *Modern Art and the death of a culture*, Inter-Varsity press, 1970.
- ④ John Milton, *paradise lost*, Edited by Merrit Y. Hughes, 1935.
- ⑤ Merle Meeter, *Literature and Gospel*,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72
- ⑥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W. W. Norton & Company, 1962.
- ⑦ *The Oxford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⑧ Ray Summer's *Commentary on Luke*, Word Books, publisher, 1972.
- ⑨ Rene Wellek and Austin Warren, *Theory and Literature*, Penguin books, 1966.
- ⑩ *Encyclopaedia Britanica*, 1969.
- ⑪ *The New Bible Dictionary*, I. V. F & Tyndale Press, 1970.
- ⑫ 도스포엡스키, 체대치 역, 카리마조프가의 형제들, 동서문화사, 1976.
- ⑬ 존·밀턴, 유령 역, 실락원·복락원, 을유문화사, 1973.
- ⑭ 영국 문학사, 신구 문화사, 1969.

## 예수 그리스도와 학문

—기독교 과학철학의 관점에서 본 가능한 하나의 시도—

金 進 燐

次

3.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본체론
4.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방법론
5. 기독교 과학철학에서 본 가능한 가치론
6. 학문과 지식, 지혜의 문제

..... 目

- |              |
|--------------|
| A. 서 론       |
| 1. 문제점의 제기   |
| 2. 소년 예수와 학문 |
| B. 본 론       |
| 1. 용어 규정     |
| 2. 기본전제      |

### A. 서 론

#### 1. 문제점의 제기

기독신자들, 특별히 학문적인 준비과정에 있는 기독학생들이 학문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안고 있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에게 속하여서(요16:11) 세상과 벗되고자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약4:4)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기독신자의 강연이나 저서를 접하는 것은 사탄의 조직에 살을 대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sup>1)</sup> 많은 학문은 교단하게 하며, 미치게 하며, 비영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것이 아닌가?<sup>2)</sup> 자연과 기적, 육체와 영혼, 세상과 교회, 이성과 신앙, 도덕과 종교 사이의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sup>3)</sup> 기독교 교회사적으로

1) 현대 한국기독교 독서계에 영향력이 큰 Watchman Nee의 저서중에 *Love not the World*(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생명의 말씀사, 1972)는 이런 의문을 유도한다.

2) 참조 : 고전8:1; 행26:24.

3) 은총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분리하여, 자연은 하나님 없이도 연구 해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자연을 진지하게 논리적으로 연구하면 단물 배후에 “어떤 신”이 있다는 지식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결과물”(end-product)일 뿐이며, 은총의 영역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바, 하나님을 “전제”(Presupposition)해야 한다는 주장은 Thomas Aquinas의 *Summa Contra Gentiles*에서 비롯된 로마교의 입장인 바, 이러한 이원론적 입장을 가진 복음주의자들도 있다.